

##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 ② 아버지 주일: 아버지 주일입니다. 부모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③ 성경공부: 화요 성경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개강일: 5월 17일(화) 시간: 7시 30분 ~ 9시  
장소: Duke Institute (12-14 Huron St, Takapuna)  
강의 과목: 기독교적 세계관 (12주, 심장진 목사)  
성경탐구 40일 (15주, 이태한 목사)
- ④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⑤ 월례회: 2 남선교회 (유아실), 4 여선교회 (계수실) 월례회가 있습니다.
- ⑥ 감사: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1 여선교회원들 고맙습니다.
- ⑦ 예배: 양의문 교회 김중환 목사 취임예배가 있습니다.  
일시: 2011년 5월 15일(주일) 오후 5시  
장소: Avodale Baptist Church (1288 New North Rd. Avondale)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 5월 교회일지

####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식):  
5월 1일 (주일)

아버지 주일:  
5월 8일 (주일)

이삭줍기주일:  
5월 22일 (주일)



## 교우 소식

입원: 이수원 권사 (발목 골절) North Shore Hospital 9층 M실

### 5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     | 1부기도 | 2부기도 | 수요기도 | 예배 안내   | 새신자 안내      | 주차안내 | 주방봉사        |
|-----|------|------|------|---------|-------------|------|-------------|
| 1일  | 고성일  | 최장한  | 김인희  | 박병민/이기중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 8일  | 이동술  | 김성희  | 김재연  | 박병민/이기중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 15일 | 최득수  | 김정민  | 정진택  | 박병민/이기중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 22일 | 박일영  | 김이삭  | 김정옥  | 박병민/이기중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 29일 | 김영길  | 진혜령  |      | 박병민/이기중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자유함의 영이 풍성히 임하도록 (김기섭, 김경수, 이수원 등)
2.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3. 모이기에 힘쓰고 메말라가는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4.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던 어스커트 선교사가 바다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다가 순교했다. 세계곳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장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재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Newton Rd, City, Grafton Rd, Mt Eden, Southern Motorway, Newmarket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아버지 주일**  
2011년 5월 8일

주보 13권 19호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주일1부예배

|                              |          |       |
|------------------------------|----------|-------|
| 오후 1시                        | 인도:이태한목사 | 반주자   |
| 전주                           |          |       |
| 예배로 부를 레위기 19:2-3, 요한복음 4:24 | 인도자      |       |
| 개회송                          | 찬양대      |       |
| 참회의 기도                       | 다함께      |       |
| *찬송 35장 (구 50장)              | 다함께      |       |
| *성서교독 98 아버지 주일              | 다함께      |       |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       |
| 찬송 250장 (구 182장)             | 다함께      |       |
| 대표기도                         | 박제용장로    |       |
| 성경봉독 출애굽기 20:12, 에베소서 6:1-3  | 인도자      |       |
| 찬양대찬양                        | 나무십자가찬양대 |       |
| 설교                           | 형통한 삶의 길 | 이태한목사 |
| 찬송 579장 (구 304장)             | 다함께      |       |
| 헌금기도                         | 인도자      |       |
| 교회소식                         | 인도자      |       |
| *응답송 주기도문 송                  | 다함께      |       |
| *축도                          | 이태한목사    |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고성일 집사 5월 22일: 박일영 장로

지난주일통계 | 1부 116명 2부 14명 학생부 22명 아동부 14명 유아부 12명 총계178명

건축헌금  
지난주: \$110.00  
총계: \$591,969.97

## 주일2부예배

|                   |            |       |
|-------------------|------------|-------|
| 오후3시              | 청년찬양단      | 다함께   |
| 찬양                |            |       |
| 기도                | 김성희집사      |       |
| 성경봉독 민수기 18:25-29 | 인도자        |       |
| 설교                | 나눔의 축복     | 심창진목사 |
| 찬송                | 내가 무엇을 가지고 | 다함께   |
| 헌금기도              |            | 인도자   |
| 교회소식              |            | 인도자   |
| 축도                | 심창진목사      |       |

다음주 기도: 김정민집사

## 수요예배

|                    |               |       |
|--------------------|---------------|-------|
| 오후7시30분            | 수요찬양단         | 다함께   |
| 찬양                 |               |       |
| 기도                 | 김재연집사         |       |
|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1:9-21 | 다함께           |       |
| 설교                 | 새 예루살렘 교회     | 이태한목사 |
| 찬송                 | 246장 (구 211장) | 다함께   |
| 합심기도               |               | 인도자   |
| 광고                 |               | 인도자   |
| 주기도                |               | 다함께   |

수요예찬 기도: 조향선집사  
다음 수요기도: 김지혜집사

## 갈보리 컬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집 막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하루라도 빨리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날마다 두시간씩 걸리는 기차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기차 시간에 대느라 새벽부터 일어난 딸은 뒤져봐야 헐어빠진 옷들뿐인 옷장에서 아껴두었던 치마를 찾아 입었습니다. "좋아, 이만하면..."

그런데 스타킹이 문제였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스타킹이 하나같이 구멍나고 헐고 울이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벗어 놓을 때까지만 해도 팔짱꿨었는데 말입니다. 딸은 스타킹을 들고 다짜고짜 엄마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거 다 왜 이래?"  
"아이구 저런, 내가 빨다가 그랬나 보다. 이놈의 손이 갈퀴 같아서 원. 이를 위저나"  
딸은 미안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엄마 앞에 스타킹 뭉치를 팽개쳤습니다.  
"엄마, 다시는 내 스타킹에 손대지 마. 이제부터 내가 빨 테니까"

엄마는 그 억지투정을 말없이 받아 넘겼지만 그 후론 딸의 스타킹에 정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여름 방학이 되어 딸이 집에서 빈둥대고 있을 때면 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네? 우리 엄마 지문이 다 닳았대구요?"  
엄마의 주문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문이 닳아서 지장을 찍을 수 없으니 제발 며칠만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스타킹을 못쓰게 만들 정도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을 단 한번도 잡아드리지 못했을까

딸은 발로 엄마를 찾아가했습니다. 그늘 한점 없는 피약밭, 기억자로 굵은 등.. 평생을 그렇게 논 매고 밭 매며 역새풀처럼, 질경이처럼 살아 온 엄마였습니다.

딸은 말없이 다가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흑흑흑"

"어이구, 우리 막내가 웬일로 발엘 다 오고" 영문도 모른 채 엄마는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비록 팽벌에 그을리고 께이고 흙 묻은 손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웬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속에서 좋은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말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뭙니다.

살아 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 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헤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있는

한 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신부